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편다

전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 의뢰 특성분석 등 맞춤형 대책 추진 축산시설 현대화·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암모니아 배출 관리

익산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운영한다.
익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북도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한 '미세먼지 특성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맞춤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익산지역 미세먼지는 75.3%가 중국 산시성, 라오닝성, 허베이성 등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초미세먼지 자체 배출량은 전국 배출량 대비 0.3%에 그치고 있으나 대기 정체 시 대기 중 가스 상 물질이 암모니아와 같은 전구물질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다.
시는 2차 초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암모니아 배출량이 전북 2위로 조사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축산시설 현대화, 악취 저감시설 지원, 악취 저감 시설물 배양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암모니아 배출분야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익산시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가 비산먼지 41%, 생활성연소 21%, 도로이동오염원 18%, 비도로 이동오염원 11%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배출원별 저감 방안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구상이다.
특히 푸른익산(500만그루나무심기)만

들기와 어린이·노약자 마스크 및 공기정정기 보급,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녹색도시로서의 익산을 최상위 가치로 보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2부제 참여, 불법소각 금지, 나무심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남원지역 '동네방네' 관광명소 SNS 소개 시, 봄 행락철 맞아 블로그기자단 운영 탐방취재

남원 지역의 '동네방네' 관광명소를 SNS로 소개하는 블로그기자단이 나들 잇길에 나섰다. <사진>
남원시에 따르면 봄 행락철을 맞아 최근 10명의 블로그기자단이 시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탐방 취재를 진행했다.
이번 블로그기자단의 탐방 취재는 남원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을 SNS 및 블로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블로그기자단은 시의 관광명소인 옛서도역과 혼불문학관, 운봉허브밸리, 함파우소리체험관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SNS 및 블로그에 소개할 사진과 글귀를 포스팅했다.
기자단은 가장 먼저 옛서도역과 지역

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우리말을 풀어낸 대하소설 '혼불'을 기념하는 혼불문학관을 돌아보며 탐방을 시작했다.
전국적인 빛장 명소로 알려진 요천변을 거니는 등 각양각색 관광매력을 담았다.
블로그기자단은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시의 동네방네 소식을 담아 시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 "대부분의 관광객이 쌍방향 소통매체인 블로그를 통해 관광영소를 검색하고 방문하고 있다"며 "시의 숨은 명소를 블로그기자단을 통해 소개해 지역 관광명소를 전국에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일본식 행정용어 등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 전북도교육청

전북도 교육청은 3·1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 100주년을 맞아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을 진행한다.
일제 식민지 지배 탓에 사라진 아름다운 우리말을 복원하고 교육현장에 뿌리 깊은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취지다.
공모 분야는 일본식 행정 용어, 일본식 조직 문화, 제국주의적 교육 제도 등이다.
도민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순화 대상 용어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이유와 함께 적어내면 된다.
공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라(가짜), 대절(전세), 견본(본보기), 교수부지(둔치), 백목(분필)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일본식 용어는 제외된다.
전북교육청은 6월 초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작 출품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가족센터는 최근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집단직업상담, 이력서작성법 및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방법, 제과기능사 체험 등 구직자 교육을 실시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패키지 사업

9월까지 '괜찮은 일자리 찾기' 등 14회 걸쳐 진행

고창군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행복한 미래설계와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2019년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주민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된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계별 지원패키지는 한국정착이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미래찾기 ▲당당한 학부모를 향한 길찾기 ▲괜찮은 일자리를 향한 길찾기 ▲폭넓은 사회활동을 향한 길찾기 등 총 1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센터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해 집단직업상담, 이력서작성법 및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이미지메이킹 방법, 제과기능사 체험 등 구직자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4월에는 '미래 찾기' 프로그램,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고창관내 관련기관 방문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고창군에는 총 478명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는 398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 편람' 제작 배부

순창군이 지방보조금 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보조금 관리 실무 편람'을 제작해 배부했다.<사진>
이번에 발행된 실무편람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근거해 실무담당자의 보조금 관리업무의 이해를 높이고 보조사업 체계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지방보조금 개요와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등 총 9개 단락으로 구성했으며, 보조금 선정부터 집행과 정산,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업무에 전반적인 사항을 담았다.
군은 실무편람을 제작·배부함에 맞춰 지난달 29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보



조사업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실무 교육도 진행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j@

정읍에 전동차 생산공장 이달중 착공

(주)다원시스, 연간 300량 규모 2020년 입주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주)다원시스 정읍공장이 4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다원시스는 정읍공장 준공으로 향후 10년 이내 6조원에 이르는 국내 전동차 수요

시장에 대비해 연간 300량 규모의 전동차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장은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입암면 하부리

(노령역) 일원에 22만1861㎡ 규모의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착수, 다원시스 정읍공장 신축 예정부지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다원시스 뿐만 아니라 연관 기업의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52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52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전동차 생산 공장이 가동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읍이 전동

차 생산 전국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다원시스 정읍공장이 들어설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전북도와 정읍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작해 이룬 성과로 단지 조성과 철도 연결 선로 사업(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진입도로, 기숙사 건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QR code and text: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사무실 전용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02호, 38평(전용 약 23평)
-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대출 3천만원 가능
- 보5백만원에 월6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 - 1억 2000만원 정도
급매 - 7500만원(일시불)
문의. 010-6834-7400